

세계적인 대학 건설의 첫 항해 ‘4년제 종합대학 승격’

김희찬 (경희기록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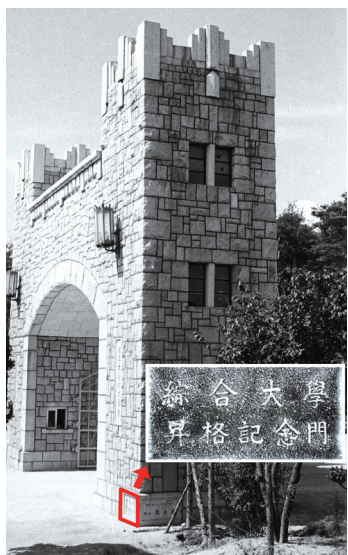
경희의 유산 ⑧
『종합대학 승격 기념 표식』

우리 대학은 1955년 2월 28일자로 꿈에 그리던 4년제 종합대학으로 승격했다. 휴전협정 이후 피란지 부산에서 서울로 이전(1954년 3월 24일)한 지 불과 11개월 만에 이룩한 쾌거였다.

종합대학 승격을 영원히 기억해 전하기 위해 당시 건설 중이던 정문(1955년 2월 17일 착공) 우측 기단부에 기념 표석을 설치했다. 표석 전면에는 ‘종합대학 승격 기념문’, 측면에는 ‘단기 4288년 5월 10일 총장 조영식’이라 새겨 놓았다. 이 기념 표석은 그동안 우리 대학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종합대학’과 ‘총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최초의 석각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이처럼 피란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종합대학 승격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서울 이전의 명분으로 삼았던 ‘세계적인 대학 건설’을 향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 방안이었기 때문이다.

서울 이전 직후, 1954년 5월 20일



정문 우측 하단부에 마련된 ‘종합대학 승격 기념 표식’(1955년 5월 설치)

학장 취임사를 통해 설립자 조영식 박사는 ‘세계적인 대학 건설’의 미래 비전을 천명함과 동시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첫 번째 미션, 즉 4년제 종합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시작했다. 약 7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1954년 12월 28일자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당시 인가 문제는 경기도청 강당에서 열린 중앙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되었는데, 거의 전원 찬성과 지지를 얻어 가결되었다.

당시 종합대학 편제를 보면, 대학원의 경우 석사학위 과정만 허가를 받았는데, 법률학과, 정치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각각 12명씩 전체 48명이었다. 학부 단과대학으로는 법과대학 법률학과,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문리과대학 국문학과, 영문학과, 사학과, 생물학과, 체육대학 체육학과, 체육음악과 등 4개 단과대학 9개 학과 전체 재학생 수 1,520명이었다. 부설기관으로 부속도서관, 부속박물관, 부속식물원, 부속녹음관을 설치하기로 했고, 교지는 130,000평 이상, 교사는 5,220평 이상, 체육장은 11,000평 이상을 1959년 3월까지 완성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과 함께 4년제 종합대학 설립을 인가받았다.

이 기념 표석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정문에 새겨진 ‘등용문’ 글자를 탁본하기로 한 2013년 2월 어느 주말이었다. 탁본 당일 ‘등용문’ 글자를 포함한 정문 전체를 세밀하게 조사하던 중, 정문 기단석에 ‘종합대학 승격 기념문’이라고 새겨진 표석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지금도 당시를 떠올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발견과 환희의 순간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1955년 이래로 이 기념 표석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 왔건만, 우리들의 기억 저편으로 서서히 사라져 갔다는 사실에서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더할 뿐이었다.

지금도 여전히 이 기념 표석은 정문 기단석 정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나아가는 첫 항해’의 순간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잊혀지지 않기를 기원해 본다.



우리학교가 교육부 주관 ‘2026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우수대학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글로벌교육지원팀 제공)

학생 지원, 이제는 역량을 쌓는 방식으로 유학생 취·창업 우수대학공모전 대상 수상

김민영 기자 myk50600@khu.ac.kr

우리학교가 교육부 주관 ‘2026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우수대학 공모전’에서 일반대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인증하는 ‘외국인 유학생 핵심역량 인증제(KHU-PASS)’를 기반으로 학업 적응부터 취업 준비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핵심역량 인증제(KHU-PASS) 기반 취·창업 통합 성장 체계 구축’을 주제로 공모전에 참여했다. KHU-PASS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진로 설계, 취업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역량 인증제다. 한국어·진로설계·글로벌 경험·문제해결 프로젝트 등 25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자기 주도, 문제해결, 의사소통, 협업, 창의적 사고 등 5개의 핵심 역량과 연계해 운영한다.

글로벌교육지원팀 김은정 과장은 이번 수상의 가장 큰 배경으로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기존에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개별 운영돼 역량 축적과 취업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김 과장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이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역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점이 차별점”이라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량 중심으로 연결하는데 집중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교육부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수 증가에도 유학생 취업률(33.4%)은 전체 졸업자 평균(69.5%)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취업·정주를 연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며 “이에 유학생의 취·창업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 이전에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비교해 학생들의 실질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다수의 프로그램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지만, 지난해 2학기 KHU-PASS 시범 운영 결과 208명이 참여해 7명이 최종 인증을 취득했고, 프로그램 참여 건수는

학기당 196건에서 527건으로 늘었다. 올해 1학기에는 참여학생이 277명으로 늘었고 현재까지 총 551건의 프로그램 참여 실적이 집계됐다. 최종 인증 취득자는 10명으로 확대됐다.

다만 취업 성과는 아직 확인 단계다. 김 과장은 “쿠팡이 지난해 2학기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인증을 취득한 학생 가운데 취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학생이 없다”며 “향후 인증 취득 학생의 실제 취업 여부도 추적해 제도의 성과를 살필 계획”이라 밝혔다.

글로벌교육지원팀은 앞으로 KHU-PASS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인증 요건과 포트폴리오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캠퍼스타운센터, 미래인재센터 등 유관 부서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KHU-PASS 실적으로 연계 인증하는 등 인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학생들이 입학부터 취업까지 자신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